大學의 自由와 個性의 限界

木浦大 學長 金 永 鎭

敎育은 인간을 인간답게 形成하고 인간은 敎育을 통해서 個體를 完成하며 道德性과 倫理性을 통해서 人格을 陶冶한다고 한다. 또 敎育은 人類의 文化遺産인 學問, 藝術, 宗敎, 知識, 技術水準 등을 繼承·發展시키며 社會改革과 國家發展의 原動力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大學敎育은 大衆化敎育으로 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수가 100여 개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立證해 주고 있다. 大學敎育이 大衆化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의 世俗化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多樣化와 社會化를 통한 一般化를 뜻하는 것이므로 대학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대학의 自治와 學問의 自由는 대학이 바라는 최고의 理想이다. 대학의 起源인 中世大學의 성격이 이러한 精神에서 始作하였기 때문에 이 두 精神은 대학이 志向하는 本鄕이기도 하다.

대학의 발달사를 볼 때 오늘날까지 대학은 宗敎와 政治的 權力에 의하여 干涉을 받아 왔고 그럴 때마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自治를 堡壘로 삼아 맞서 오기도 했다. 그러기에 대학은 이런 것들과 對應하면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守護하는 葛藤 속에서 發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언제나 주장되어 왔던 까닭은 대학이 本質的으로 眞理를 探究하는 존재로 되어 왔고 眞理探究는 학문의 자유를 통해서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문의 자유가 그 根底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自由는 放縱과 衝動的 選擇이 아니라 知性人으로서의 良心과 自制에 의한 自律이기 때문에 더욱 崇高한 것이다. 즉 자유가 大學精神의 根本이 되고 大學이 자유를 守護하려는 것은 대학인은 良心이 命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創造精神으로 眞理를 探究하여야 하고 그래야 참 學問이 發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自由는 無秩序와 放縱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항상 秩序와 責任과 自律과 함께 있어야 한다. 만약 대학의 自由에 이것들이 隨伴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自己의 자유를 누리고 守護하기 위해 남의 자유와 人格을 무시해 버리는 결과를 招來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自己規制, 즉 自律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칸트는 自律의 原理로 "네 意志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普遍的 立法의 原理로서 妥當하도록 행위하라"고 한 것도 自律을 강조하고 道德律의 普遍妥當性을 力說하고 있는 말이다.

또 대학은 個性을 尊重하는 社會다. 個性을 존중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天稟뿐만 아니라 개체적 인격까지를 尊重한다는 뜻으로서 窮極的으로는 인간의 尊嚴性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너무 개성만을 强調하다 보면 公益과 汎國家性

에 違背되는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相衝的인 이 兩者의 奧妙한 調和를 우리는 마름모에서 볼 수 있다. 마름모는 兩極의 角들이 中道地域을 향해 接近해 있다. 이는 그 角들이 지닌 個性과 그것들이 공동으로 形成하는 넓은 空間이라는 二重的 意味를 뜻한다. 우리 모두의 대학인들이 마름모처럼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中庸之道를 지켜 公益의 空間을 擴大시키는 大我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易之思之란 말도 이와 관계된 말이다. 자기의 처지와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는 知的 誠實性을 강조한 말이다. 교수는 학생을, 학생은 교수를 서로 이해하고 補職者는 非補職者를, 非補職者는 補職者를 서로 理解하면서 大學文化와 대학다운 風土를 함께 造成해 나가야 할 것이다.

神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能力과 素質에 맞는 所任을 주었다. 모든 사람의 能力이 같아 그 所任 또한 같다면 이 세상은 어느 한쪽만 발전하고 길어지는 畸形社會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다음 구절은 사람의 능력과 소임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읍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읍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大學은 多樣한 能力과 所任의 集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個性이 강조될 憂慮가 있고 그 결과는 남의 所任과 人格까지 侵犯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大學本然의 聖域性을 스스로 沮害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대학에서 硏究되고 傳授되는 學問은 純粹性과 實用性이 동시에 要求되고 있다. 대학의 機能은 敎育·硏究·奉仕에 있다. 이는 곧 中世大學의 自治의 精神, 近代大學의 硏究의 自由, 現代大學의 社會에 대한 責任이라는 大學理念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학의 機能이 硏究로만 그친다면 순수한 아카데미즘으로 흘러도 되겠지만, 대학이 사회와 隔離된 世界가 아니고 사회 속에서 사회와 密接하게 連繫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임과 동시에 곧 사회와 사회 발전에 貢獻하는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高度의 産業社會에 살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知識과 情報가 폭발적으로 膨脹되고 科學과 테크놀로지가 사회의 方向을 크게 支配하며, 個人과 集團의 生活에도 높은 水準의 專門知識이 要請되고 있다. 대학은 이에 副應하여 고도의 知識을 受容하고 傳授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지식은 인스턴트화된 商品的 지식으로가 아니라 知性의 통제 아래 혹은 知性과 함께 傳授될 때 참 知識으로서의 叡智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知性은 사회에 대한 批判과 自己反省을 동시에 促求시키는 根本이 되는 것이며 邪心과 誘惑으로부터 自己를 守護하는 支柱가 될 것이다.

대학이 대학인 모두의 聖域이 되도록 모든 대학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